

요한 서신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GOOD NEWS

요한 서신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Hans-Jörg Ronsdorf

내가 살아 있으니 너희도 살 것이다.

요한복음 14:19

요한 서신을 제 말로 풀어 쓴 책, 곧 설명을 곁들여 옮긴 책입니다. 분량은 고전적인 성경 번역에 실린 원래 성경 본문의 약 세 배입니다.

제1판 2020년 6월

© Hans-Jörg Ronsdorf - 모든 권리 보유

www.hans-joerg-ronsdorf.de

Albis 6 ½

87477 Sulzberg

hj-ronsdorf@t-online.de

독일어판 ISBN 978-3-9820715-4-1

표지 디자인: 토비아스 슈트릭커(Tobias Stricker)

왜 성경을 읽는가?

이 작은 책자가 여러분의 손에까지 왔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긴 편지 하나와 짧은 편지 둘에 관한 책입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편지들입니다. 고대의 이런 글이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글쓴이가 특별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분을 몸소 겪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편지에 비길 데 없는 가치를 줍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거의 처음부터, 오늘 우리가 신약으로 알고 있는 글 모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은 요한복음과 이 편지들 모두를 꿰뚫는 주제입니다.

이 요한의 편지는 사람의 잣대로 말하면 경계를 넘어섭니다. 저편에서 알려 주지 않으면 아무도 넘을 수 없는 경계입니다. 이 편지는 가장 맑은 호수, 가장 높은 산, 가장 아름다운 꽃, 가장 위풍당당한 사자, 가장 아름다운 그림과 같습니다. 어떤 문학 걸작도 이 편지에 조금도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리에도 오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Sokrates)도, 플라톤(Plato)도, 크세노폰(Xenophon)도, 아무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놀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의 불꽃놀이입니다.

신학자들이 오늘날 최고의 연구로 무엇을 추측하고, 어떤 가설을 세우고 짜 맞추든, 이 편지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편지가 없다면 신약에는 꼭 필요한 주춧돌 하나가 빠졌을 것입니다. 이 편지가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편지는 오늘날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는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경험은 오늘의 신자들에게 중요합니다. 결국 그들도 자기들의 복잡하고 다원적인 사회 속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살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늘 쉽지 않습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로 모순되는 종교와 철학으로 가득 차 있던 세상, 그래서 우리 세상과 닮은 세상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예수께서는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깨달음)이라고 정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만, 우리 각 사람이 그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이것은 역사의 어느 곳에 사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주제입니다!

편지의 자세한 배경과 계기

어떤 독자들 이 편지들이 분열과 혼란의 시기에 쓰였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분열과 혼란은 특히 이른바 요한 공동체라고 부르는 수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짓 가르침과 그릇된 길을 재구성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 그런 일은 이미 충분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편지들에 나타난 진리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에 맞서 말할 수 있고, 그것들을 반박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영지주의, 가현설, 또는 케린투스(Kerinthus)의 가르침 같은 형태로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그만큼 정확하게 재구성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워 보입니다. 이 편지들은 여러 가지 그릇된 확신을 다루는데, 그 가운데 많은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편지가 보내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편지의 세 가지 주제가 두드러집니다.

기독론 - 예수는 누구시며, 그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를 하나님이시며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이 편지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독론은 예수께서 누구신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에게는 예수에 관한 진리를 건드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에 관해 그릇된 가르침을 가지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참 사람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사람 예수와 그분의 구원을 가져오는 고난이 가진 구원의 의미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온 거짓 교사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퍼뜨렸는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레나이우스(Irenäus)가 전하는 2세기의 한 전승에 따르면, 교회 지도자들은 케린투스라는 사람에게 맞섰습니다. 그는 사람 예수와 영적인 그리스도를 날카롭게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린투스는 예수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선생이었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사람 예수에게 내려왔다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다시 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5:6-8 참조).

2세기의 또 다른 그리스도인 이그나티우스(Ignatius)는 신자들에게 “가현설적” 기독론을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가현설이라는 말은 “보이다, ~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의 헬라어 *dokeô*에서 왔습니다. 가현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사람인 것처럼 “나타났을” 뿐이거나 “보였을” 뿐이며, 고난받고 죽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뒤 조금 나중에 기독교에 도전한 또 하나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입니다. 어쩌면 이 편지는 이 세 흐름이 아직 가장 초기 단계에 있을 때 그것들을 겨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또 하나의 큰 주제, 아니 어쩌면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곧 “agape”입니다. 이 주제는 요한의 기독교적 관심과 떼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습니다.

저자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협상할 수 없을 만큼 중심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사랑은 진리와, 하나님에게서 난 참된 삶을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이원성 - 둘로 나뉘

이 편지들을 주의 깊게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거듭 대립되는 것들과 부딪칩니다. 요한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이원론의 특징을 띠니다.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 사랑과 미움, ... 그(또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의 대립입니다. 요한이 경험하는 세계는 그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편에는 하나님, 예수(하나님을 대신하는 분),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진영이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에는 마귀와 그의 자녀들(요한일서 3:8), 적그리스도(들) (2:18, 22; 4:3; 요한이서 1:7), 적그리스도의 영(요한일서 4:3), 그리고 악한 자의 영향 아래 들어간 세상이 속합니다. 요한에게는 한 사람의 충성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요한일서 3:10이 보여 주듯이, 사람의 행동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이로써 드러나나니, 옳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요한의 표현 방식과 세계관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로 하면 흑 아니면 백입니다. 거의 디지털 같은 시각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낯설게 들립니다. 그러나 요한을 이해하려고 애쓰면, 그의 접근 방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듣는,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반응은, 요한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적극적이고 자기를 내어 주는 사랑이 순위표의 1위를 차지합니다. 조건도 단서도 없습니다. 협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의 기준은 높습니다. 사실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그것을 100%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 방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죄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그것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만(3:6; 5:18), 우리가 아직

죄를 짓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2:1). 요한의 사고방식에서 그것은 모순이 아니며, 우리에게도 모순일 필요가 없습니다.

글쓴이는 누구인가?

이 문서들은 전통적으로 요한이라는 사람과 연결되지만, 이 전통을 확증해 주는 내적인 증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실 세 편지 모두 익명입니다.** 요한은 인사도 호칭도 없이 곧바로 논증으로 뛰어듭니다. 요한이서와 요한삼서는 옛날의 잘 알려진 편지 형식을 따르며, 보내는 사람을 개인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장로라고만 밝힙니다. 아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같은 저자일 것입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 곧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는 데에는 많은 근거가 있지만, 다른 요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곧 같은 이름을 가진, 역시 주님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70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편지의 구조와 목적

이 글은 아마 원래 저자가 속한 교회에서 설교로 쓰였다가, 그 뒤 주변의 다른 교회들에 돌려졌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그 바탕이 놓인 요한의 전통을 듣는 사람들이 굳게 붙들도록, 그것을 지키고 강화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편지를 “칭송 연설(epideiktische Rhetorik)”로 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가치를 더 굳게 붙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연설 형식입니다. 크루스(Kruse)의 생각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처럼 논증의 흐름을 찾으려 하지 말고 요한일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윤리가 주는 위협 앞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전통적인 진리를 굳게 붙들도록 독자들을 강하게 하려 한다.”

저는 이 편지를 여러 번 읽었는데, 그때마다 구조나 흐름이나 논증의 줄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구조는 그 장르, 곧 문학 양식만큼이나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전체 설계가 없습니다. 짜임새 있는 구조를 찾으려는 노력은 대개 억지스럽고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조를 설명하려고 나선의 그림을 빌려 옵니다. 생각이 직선적이라기보다 원을 그리며 돌아갑니다.** 그는 서로 얹혀 있는 같은 주제들 - 죄, 사랑, 건전한 기독교론 - 로 거듭 돌아오고, 다른 두 주제에 대해 말한 것에 비추어 그것들을 점점 더 발전시킵니다.

구성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환 I	순환 II	순환 III
	1:1-2:28	2:29-4:6	4:7-5:21
드러남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남(1:2 참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남(3:2, 5 참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남(4:9 참조)
시험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는 고백을 무엇으로 시험하는가 a) 의로운 행실 (1:5-2:6) b) 참된 사랑(2:7-17) c) 바른 가르침(2:18-28)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무엇으로 시험하는가 a) 의로운 행실 (2:29-3:10) b) 참된 사랑(3:11-24) c) 바른 가르침(4:1-6)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증명되는 것은 a) 사랑 (4:7-21), b) 순종(5:1-5), 그리고 c)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서다 (5:6-21)
이겨야 할 장애물: 세상	세상은 그 매력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에서 떼어 놓으려 한다. (2:15-17)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3:13-15)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게 만든다 (5:3-5)
경고	거짓 그리스도들에 대한 경고 (2:18-29)	거짓 영들에 대한 경고 (4:1-6)	거짓 신들에 대한 경고 (5:18-21)

도표: 알로이스 바그너(Alois Wagner)

요한일서

말씀이신 예수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로 이끄시다 1:1-4

예수께서 우리 열둘을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보고, 만졌습니다. 참된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신 그대로의 생명입니다.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치지 않는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신 예수, 곧 LOGOS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참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일어난 일을 증언하고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에 대해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그것은 말 이상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볼 수 있었고 감탄할 수 있었습니다 - 그렇습니다, 만지고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고, 우리는 3년 동안 그분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그분을 껴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며,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분 고유의 영원한 존재가 나사렛 출신의 건축 일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사도들과 다른 많은 사람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소식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증인입니다. 영생 자체이신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셨다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럽고 충만한 영원한 생명을 자기 안에 지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의 선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넘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입니다. 예수를 통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를 아버지와 이어 줍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 공동의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모든 것의 심장이 되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귀를 가집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게 들리겠지만,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를 가집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 모두, 여러분과 우리,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서로 속하고 모든 것을 함께 가진 한 가족입니다. 모든 것을 나눕니다. 이렇게 하나 된 공동체 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도착한 기쁨입니다. 땅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을 훨씬 뒤로하는 기쁨입니다. 더 클 수 없는 기쁨입니다. 깨어 있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느끼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순수한 빛이시다 -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삶 - 예수의 피 아래에서 받는 용서 1:5-10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아무리 특별하고 유일하다 해도, 이 사귀를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귀와 하나님의 가까우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언제나 분명하고 또렷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일러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꼭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밝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본성에 어긋나는 것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과 그분의 선한 창조 세계를 망가뜨립니다. 예를 들면 사랑 없음, 감사하지 않음, 자기중심,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분의 선한 계명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 그리고 예수 안에도 - 이런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의, 또는 물리적인 의미의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어둠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태도를 방향을 잃게 만드는 어둠입니다. 죄와 불의에 감염된 상태, 빛이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 그러듯이 -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둠 속에서, 곧 하나님을 묻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일 것입니다.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데려다 놓으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서로, 그리고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살아 있고 변함없는 사귀어 가집니다. 그분의 빛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고 아버지 집의 기쁨 가운데서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빛 가운데 살고 머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듭 실패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빛 가운데 영원히 집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분의 피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로써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 흘리신 이 귀한 피가, 우리가 아직 죄를 짓는 동안에도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귀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를 지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흐려지거나 아예 사라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영원한 안전이요 보증입니다. 우리의 순종이나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사귀어 가능하게 하거나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귀한 피를 보십니다 - 오직 그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영원히. 옛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심판에서 지켜 준 유월절 어린양의 피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나친 죄, 잊어버린 죄, 의식하지 못하는 죄에서도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에서도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듯이, 우리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며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와 현실을 비껴가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속여 그릇된 길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이 거짓말과 자기기만에서 풀려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 죄에서 벗어납니다. 오직 그렇게 해서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에만, 곧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말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 참되고 살아 있는 사귀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의 깨끗하게 하는 피 아래 사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사귀에도 들어갑니다.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죄도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거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확신이 되십니다. 예수의 귀한 피는 그분의 거룩하고 죄 없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분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이 자기를 내어 주는, 순종의 제물은 하나님께 해야 할 수 없이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죄를 진실하게, 숨김없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시기로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의 이 피에 근거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아야 하므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저절로 죄 없이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기기만은 더욱 비극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이 죄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죄가 없고 죄 없이 산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의 피를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나, 정신으로나, 몸으로나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2:1-2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 안에서 나의 자녀들이여,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굳이 쓸 필요도 없겠지만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영원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창조되었고 타락한 우리 사람들을 그분의 사귄 안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우리에게 죄는 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죄는 바로 어둠이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그분처럼 생각하고 느끼시다. 죄에 대한 우리의 거절이 자라고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귄에는 우리의 실패를 정직하게 보고 인정하는 것도 속합니다. 정직하게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과연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모르고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짓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때문에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들과의 사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줄어든다면 그것은 이 사귄에 대한 의식, 그 사귄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결과 소속과 가족의 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아버지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곁에서도 우리를 위해 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변호인,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안전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며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보증이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히 의로우신 것처럼 완전하셨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 버리셨습니다. 없애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하고 단 한 번뿐인 속죄**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온 창조 세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제 우리에게서 불의하거나 더러운 것을 더 이상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불의한 행동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속죄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고 없어졌습니다. **그분의 제물은 너무나 크고 귀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지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물에게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용서를 선언받습니다.

진리의 시험: 고백과 행실이 하나 됨 2:3-6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행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와 살아 있고 삶을 바꾸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집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그분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랑, 긍휼, 진리, 거룩하심이 우리에게서도 보인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 사랑이 가장 크고 - 어둠은 지나간다 2:7-11

사랑하는 친구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은 예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새로웠습니다. 돌아보면 그것은 옛 계명, 본래의 계명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그 계명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영원히 **새 계명**입니다. **예수를 통해 그 계명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 사랑의**

계명으로서입니다. 그런 것은 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참으로 그분 안에 살아 있었고 -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도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해서만, 오직 이렇게 해서만, 우리는 그분처럼 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로써 미래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은 점점 더 물러나야 합니다. 어둠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삽니다. 그곳이 우리 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편안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께서 모든 것을 비추실 날이 곧 옵니다.

이 빛 가운데 산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둠에 속합니다. 미움은 어둠 속에 집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미움이 마음껏 날뛵니다. 그러나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는 안전하고 볼 수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야겠습니다. 자기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눈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세상 2:12-17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뿐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보다 예수를 알고 사랑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도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 믿음으로 악한 자, 곧 마귀를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싸움에 맞서 굳게 섰습니다.

아직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되지 않은 **자녀들**이며, 여러분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인 여러분에게 내가 쓴 것은,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앎과,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열정이 여러분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의 젊은이들인 여러분에게 내가 쓴 것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행합니다. 예수와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마귀를 이겨 냈습니다. 마귀가 퍼뜨리는 모든 거짓 가르침과 그가 미혹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습하여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예수께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행하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참된 사랑은 하나만 껴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기를 바라거나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세상에 결코 집을 둘 수 없습니다. 거기서 그 사랑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고, 지금도 환영받지 못하며, 앞으로도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는지, 무엇이 세상을 몰아가는지, 그렇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몰아붙이는지 알고 싶습니까?

온갖 **욕망**에 굴복하고 그것을 마음껏 채우는 것입니다 - 돈을 사랑하는 것, 인정받으려는 욕심, 술 중독, 수다와 험담, 성적인 욕망, 자극적인 것을 좇는 마음, 폭식, 그 밖에 많은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유혹하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참된 의미를 말 그대로 눈에서 놓쳐 버립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 허세, 교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과 남과 비교하는 것, 따돌림, 능력과 재산을 뽐내는 것, 그 밖에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병처럼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일 때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를 자기 삶의 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이런 욕망은 결코 하늘 아버지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세상의 체제와 함께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만이 세상의 멸망에서 벗어날 유일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미래의 전망입니다. 하나님의 새롭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다가올 세상을 빛 가운데서 누릴 유일한 길입니다. 영생 안에서 영원히.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들 2:18-19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예수와 함께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적그리스도**, 곧 **거짓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행세를 하며 예수의 자리에 자기를 앉힙니다. 그들은 그분과 우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마지막 시기의 특징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원래는 우리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슬픔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짓을 가르치고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진리 2:20-29

우리는 모두 **거룩하신 분 예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쓴 것은 여러분이 이런 관계를 처음 듣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 사람들의 거짓말은 진리와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결코 아버지가 아니시며 아들을 가지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자기 아버지로 모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버지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지키며 증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팔 수 없는 진리로 굳게 붙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위해 일어서는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유일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 생명의 말씀이신 사람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영생입니다. 죽을 사람인 우리, 죄인인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됩니다! 죄와 죽음은 정복될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써야 합니다. 여러분을 미혹하여 이 영광스럽고 생명이 걸린 진리들을 빼앗으려는 사람들, 떠돌이 설교자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미혹하는 자들과 거짓말쟁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귀를 빌려주지 마십시오. 성령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무엇이 참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가까이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는 앞을 내다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늘에 나타나실 날이 보입니다. 그날은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온몸의 감각으로 만나는, 비길 데 없는 잔칫날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그렇게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 이미 예수께서 눈에 보이게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그분과 함께 삽시다. 그리고

그날까지 신실하고 열심히 그분을 따릅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날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또는 두렵게 하고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 처음부터 그분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히 의로우신지 깨달았다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에게서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그 의로 살며, 그것을 행할 때입니다.

얼마나 큰 선물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집으로 가는 길에 있다 3:1-3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정말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어떤 적그리스도도 어떤 거짓 선지자도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거나 의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몸이나 능력으로는 이 새로운 자녀 됨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겐 우리는 모든 사람과 같습니다. 믿음에 관한 한 우리는 그들에게 낯선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지게 될 하나님의 자녀 됨의 그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직 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미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곧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하늘에 나타나 땅으로 오실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게 오실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놀랄 것입니다. 그분 곁에 머물 것입니다. 이 순간과 그다음에 올 일을 겪는 것, 이 오래 기다려 온 만남이 우리 소망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삽니다. 그 소망은 날마다 우리를 움직여, 그분께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타협 없이 우리 삶에서 없애게 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의로우심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미 그분을 점점 더 닮아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를 위해 준비됩니다.

죄와 마귀와 하나님의 아들 3:4-10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사실 죄인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목표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를 살아 있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는 그분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불법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은 무질서 속에서 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쌓아 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이 죄를 아무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죄를 마치 일어난 적이 없는 것처럼 없애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어떤 식으로도 죄에 감염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지시고 없애 버리신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려는 사람은 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깨닫지도 못했고, 그분을 자기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며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자신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이것 아니면 저것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회색 지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닫도록, 나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진리들을 말 그대로 흑백의 대비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의롭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삶에서 의로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죄를 짓고 자기 삶의 목표를 놓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언제나 해 온 일을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 무질서를 퍼뜨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천사들과 사람들을 미혹하여 똑같이 하게 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결국 마귀에게서 영감을 받는 것이고, 그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가 저지른 모든 것을 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의 모든 악한 것과, 그가 사람들의 삶에 남겨 놓은 모든 것을 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좌우되거나 지배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 그분의 자녀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들이 죄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아무도 자기의 참된 본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거나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묻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이웃 사랑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 이웃을 자기를 내어 주며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됨의 생명의 표지인 사랑 3:11-18

여러분이 예수와 그분의 좋은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반대를 보여 주는 끔찍한 예가 가인의 옛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귀, 곧 악한 자에게서 나와 행동하여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한 일은 악했습니다. 그가 악한 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은 의로웠습니다. 아벨은 마귀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것을 미워하는 것, 아니 그것을 부수려는 것이 악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많은 적들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 한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아**

옳게졌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부수려 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참되고 진정한 생명의 표지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직 죽음 속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기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인처럼 살인자입니다 -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든, 머리와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모두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잠시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말입니다.

사랑이 참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큰 본보기요 잣대를 우리는 예수에게서 봅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똑같이 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을 산다는 것이 곧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저 내 재산으로 곤궁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을 뜻합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 이웃의 곤궁에 마음 깊이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웃의 곤궁을 알아보고, 그것에 마음이 아프고,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쏟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사랑에 대해 말만 하고 많은 말을 늘어놓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사십시오. 열린 마음과 열린 손으로. 자기중심적인 동기 없이.

아낌없이 주는 마음은 하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다 3:19-24

이웃을 돕는 대신, 우리 마음은 자주 내어 주어야 할 것에 매달립니다. 이웃을 위해 우리의 삶과 재산을 놓아 버릴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 마음이 놓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내어 주는 나눔을 정죄한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명 위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쓸데없다고 여기거나, 그것이 말로만 그칠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돕지 않는 동기와, 도우려는 마음을 가로막는 우리 마음의 핑계를 정확히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이런 느낌과 의심에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더 높이 여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웃을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 주며 돕기 위해 놓아 버릴 때, 우리는 아버지께 자유롭고 기쁜 신뢰를 가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께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곤궁을 덜어 주려고 기꺼이 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십니다. 그분의 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그분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면, 그분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겹의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신뢰를 온전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는 것입니다** -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대하심에,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에, 정말로 모든 것에 충분하시다는 사실에 두라는 것입니다. 사는 때에도 죽는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머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겪는 사람만이 이해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그분은 그것에 대한 내적인 확신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증언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언제나, 모든 때에 우리 곁에 계시도록 그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실제적인 갈등 - 진리를 위한 싸움: 예수는 누구인가 4:1-6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돌아다닙니다. 내가 이미 말한,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영광은 반대로, 거짓의 영들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가르치려는 사람을 아무나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온 참된 영은 그 영이

예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진리입니다. 그분은 땅 위에 계셨고, 언제까지나 사람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입으셨습니다. 거기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입으셨습니다. 다만 죄는 빼고.** 그분은 아버지 곁에서 영원한 아들이셨고 언제나 그러하신데도 말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미혹의 영, 곧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은 언젠가 공공연하게, 크고 요란하고 유혹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미 이 영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메시아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꿰뚫어 보았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세상의 영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의 영적인 출신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근원은 하나님 없는,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온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험받고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영이 말하든지, 거짓과 미혹의 영이 말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4:7-16

하나님께 사랑받는 친구들이여!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왜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깊은 사랑의 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고 영원한 본성은 순수하고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돌리셨습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의 하나뿐이고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죽음과 어둠의 땅에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품었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움직인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셀 수 없는 우리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던 죄입니다. 그분은 그 죄를 치워 버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제물로 우리 죄를 치워 버리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끝없이 멀리 떨어진 거리를 이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 죄를 없애 버리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심 용융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모든 기대를 넘어, 받을 자격도 없이 이렇게 사랑받았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타입니다. 우리 안에서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눈으로 그분을 보지 않고도 그분의 무언가를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이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을 통해, 그분 안에 뿌리내린 이 살아 있는 사랑의 사귀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보았고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참으로 보셨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우리 처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이 있으며 그분과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본성은**

가장 순수한, 자기를 내어 주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사랑하기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신도 자기를 이렇게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온전한 본질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과 그분의 모든 존재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머무십니다 -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마음으로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날 4:17-1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썸을 해야 할 심판의 날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중요하고 남는 것은 오직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았다는 사실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행하면 그것이 들어맞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결코 백 퍼센트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도, 우리 삶의 이런 부족함과 죄 때문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예수처럼 살지 못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로 이미 일종의 심판이며,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용서를 통해 안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도록 하나님에게서 나다 4:20-5:3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니 결코 잊지 마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이 계명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생각 속의 보이지 않는 이론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그 사랑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은 가족으로 사랑 안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그분에게서 난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들은 형제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행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요, 동기요, 감사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알고 행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분의 계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료와 같습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고 그들 안에서 타오르는 연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행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다 5:4-5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거부하는 세상은 우리 마음도 정복하려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추도록. 함께 어울리도록. 그들처럼 되도록. 그러나 우리는 굳게 버티며 승리합니다. 예수 곁에 머물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세상을 이긴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굳게 붙듭니다. 누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차지하려는 세상의 요구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바꾸고 생명의 말씀과 이어 줍니다. 세상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고, 그 믿음에 머물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5:6-10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세례를 받을 때 “신적인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 내려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 다시 그를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고집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처형당하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이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두세 증인을 델 수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그들은 한목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사람이 되셨다고 확인합니다. 그분은 공개적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증언은 언제나 더 큼니다. 그래서 그 증언은 믿을 만합니다. 최종 심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증인이 증언한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셨습니다. 세 증인은 한목소리로 그리스도의 삶을 그려 냅니다.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한목소리의 증언을 마음에 품고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대해 하신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생을 준다 5:11-13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은 참되고 믿을 만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아주 구체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아들을 자기 마음과 삶에 모셔 들인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아들과 함께, 그는 하나님의 자녀 된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얻었습니다. 아들을 모셔 들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영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영원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 그저 머뭇거리거나 흔들리며 바라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 의심하지도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무언가로서가 아닙니다. 영생은 여러분의 땅의 생명인 여러분의 혼에 비길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파괴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한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한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그분이 누구이시며 누구이셨는지, 아주 많은 것을 담고 있고 아주 많은 것을 대표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라는 이름은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5:14-15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에게 쓴 모든 것은 우리를 그분 앞에 있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 마음이 끌립니다. 숨김없는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같은 신뢰와 걱정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치 그분이 겨우 한 걸음 떨어져 계신 것처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다정한 얼굴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께 무언가를 구할 때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뜻 -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 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정말로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간구에 대한 응답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좋은 대답입니다. 그분은 어떤 간구도 잊지 않으시고, 알맞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린 지 오래되어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 세상과 악한 자, 참되신 분 5:16-21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가족입니다. 특히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분명히,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동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나 자매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버리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 기도가 그 형제나 자매에게 생명을 선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의식하고 살아 내는 사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족의 하나 됨으로 돌아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 곧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죄는 거짓 선지자들과, 죽음 속에 누워 있는 온 세상의 특징입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짓든 거짓 선지자가 짓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죄는 그의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 -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끕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죄를 위한 그분의 제물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언제나 일부러, 즐거워하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내 편지에서 진리를 분명한 대립으로 날카롭게 드러냈습니다. 흑백의 대비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시고 불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더 강하십니다. 그분은 악한 자를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을 건드릴 수도, 망가뜨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낳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 곧 마귀 편에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 속에 있습니다. 이 차이, 아니 이 대립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 그분의 거룩한 본성, 그분의 빛과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참되신 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신과 우상과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이 서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떨어질 수 없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참되신 분 안에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어디에 있든 그분 곁이 우리 집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이며 영생이십니다. 나사렛 출신의 건축 일꾼이 하나님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분, 헤아릴 수 없는 분, 영원하신 분, 언제나 계셨던 분,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가 가진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진리 앞에서, 나는 편지를 마치며 이것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작게 만들고, 약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모든 것 - 그것은 우상이며 언제까지나 우상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눈에 보이는 우상도, 사람에게서 받는 영예나 우리가 매달리는 재물 같은 “내면의” 우상도,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 용납하거나 우러러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요한이서

장로 요한이 여러분에게 씁니다. 목자로서 여러분을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씁니다.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에게 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오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예수이신 진리가 이 사랑의 근거요, 방향이요, 잣대입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 머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영원히! 믿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사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영생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과 함께 - 날마다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선물로 주십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분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몇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행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산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돌아다니는 거짓 교사들에게서 지켜 줍니다. 오늘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거짓말을 퍼뜨리려고 선교 열정에 차서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다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아들**

하나님이 온전히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건축 일꾼으로 일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속죄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늘에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실들을 일부라도 또는 전부 부인하는 사람은 미혹하는 자요,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공범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은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애써 이룬 것을 잃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선교 사역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생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상은 우리가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 안에서 살며,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해 드러난 것을 넘어서지 않을 때에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안에 머무는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와 아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설명한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가져오지 않거든, 그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예 말할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소에 반가운 손님을 맞듯이 그에게 인사하거나 그를 맞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그렇게 손님 대접하듯 맞아들이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떠돌이 교사가 여러분에게 오거든, 먼저 그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것이 분명해지면 그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라면 언제나 분명한 입장을 취하십시오. 여기서는 결코 중립이나 무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상이 위태로워집니다.

써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잉크와 종이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아름답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귄에는 언제나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도, 내가 함께 지내는 이곳의 신자들에게서도 따뜻한 문안을 전합니다.

요한삼서

장로, 곧 프레스비테로스인 나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대에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와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여, 그대가 모든 일에 잘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대의 걸사람도 속사람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에게 평탄하고 좋은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를 만난 형제들이, 그대가 얼마나 진리에 맞추어 삶을 살고 있는지 전해 주어서 나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대 마음속 진리의 열매가 모든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내게 없습니다. 내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었고, 이제 그분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사랑 안에서 굳게 붙들고, 믿음의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형제들을 대한 방식은 진리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그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기 우리 가정 교회에서 손님 대접에 보인 그대의 신실함을 증언하고 기렸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선교사로 길을 떠날 때에는 그들이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갖추어 보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섬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사역이 후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분을 선포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도움에 기대지 않고, 언제나 그곳의 믿음의 동료들을 찾습니다. 그 동료들은 그들을 맞아들일 의무가, 아니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자들은 여러분의 집에 들이지 마십시오. 오직 참된 선교사들만 들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대가 속한 가정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형제들을 맞아들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우리의 부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결정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면, 그의 이 거부하는 태도를 일깨우고 따져 묻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가 근거 없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로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섬기며 목을 곳을 찾는 형제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내주려는 사람들을 막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을 가정 교회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여, 그런 행동에 자극을 받아 똑같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간단하고 분명한 규칙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도 서로 받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테메드리오도 이렇게 돌려보내진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며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를 맞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우선입니다. 그는 진리를 위해 일어섭니다. 그는 진리와 일치하게 삽니다. 우리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대는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며 믿는 사람들의 사귄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의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그대와 같은 마음을 품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문안을 직접 전해 주십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맺는 말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격려하시고 가르치시는지, 또한 그분에게서 오지 않아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 모든 좋은 말씀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편지해 주십시오: hj-ronsdorf@t-online.de

신약의 다른 본문들은 www.hans-joerg-ronsdorf.de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중요한 조언:

성경을 읽으십시오. 할 수 있으면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 그리고 그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살아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 마치 그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을 소리 내어, 두 번 이어서 읽으십시오.

본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이 본문에 어떤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본문은 사람들에게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격려합니까?

다시 만나면 여러분의 경험과 겪은 일을 함께 나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높이며,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고 교제하십시오.